

# 자동차 생산축 **광주** 로 바뀐다



**친환경자동차 메카**  
디젤차 생산·76% 수출도시  
국내 유일 전기차 생산 도시

**생산성 최고·지리적 이점**  
글로벌 생산혁신 거점 기지 최적  
광양만권·전북권 동반 성장 가능

**각국 인센티브 지원 박차**  
美, 첨단기술 지원·인프라 무상 제공  
英, 저탄소차 혁신 플랫폼 설치 투자

**정부 결단만 남아**  
광주 그린카 로드맵·법지원 근거 갖춰  
제조업도 살리는 '든든한 지원' 있어야



##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완성차 100만대 생산이 아닌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카 기술의 세계 4강 달성을 위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지속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조성 왜 필요한가?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공장은 가동률이 100%이상으로 생산 포화 상태다. 이처럼 국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봉착돼 공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분기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가동률은 각각 107.6%, 112.5%로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성(HPV)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울산 27.8, 중국 17.9, 미국 14.8로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국내공장 생산성이 31.3인 반면, 포드자동차 유럽공장의 생산성은 18.3(2011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HPV(Hour Per Vehicle)는 차량 한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생산성마저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 공장 설립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고의 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는 광주지역에 최적의 생산시스템과 공정 개선 등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국내 및 해외공장에 전수하는 글로벌 생산혁신 거점기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3년 가동을 시작한 혼다 요리(Yorii)공장이 일본 내 100만대 내수생산 거점 및 해외기지 생산기술 전파 공장으로 꼽힌다. 공정

개선 및 통합으로 다른 공장 대비 생산 효율성이 30~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최적지  
광주는 울산에 이은 전국 제2위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지난 2013년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간 50만대에서 62만대로 생산라인을 늘리면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2010년 이래 국내 자동차공장 중 광주공장만이 유일하게 증설한 곳이다.

또한, 광주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자동차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젤차량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다. 총 생산의 76%를 수출하는 디젤 자동차 생산도시이자, 수출도시로 우뚝 섰다.  
주요 생산차종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R, 울뉴쏘울, 울뉴카렌스, 봉고 1톤, 디젤버스, 군용차량 등이며, 완성차 생산 공장 중 유일하게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EV 생산도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클린디젤(SUV), 전기차 및 특수목적차량 생산 능력 확충으로 앞으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자동차 생산 축이 울산에서 광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국내 생산 축도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서부에서 동남부로, 일본은 본토에서 규슈지역으로, 독일은 서부에서 동부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광주가 다른 지역과의 연계 전략을 펼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도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광주 자동차클러스터가 호남권 자동차산업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광양만권(철강 및 석유화학) 및 전북권(탄소)과 연계한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산 및 전주권의 상용차 생산기반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지원 및

■ 2013년 지역별 자동차 생산대수

공장	광주	울산	아산	전주	소하리	화성
생산대수(천대)	620	1,540	300	125	350	600

■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대응전략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전략
기술 변화 ·친환경화, 전장화, 경량화, 소형화, 스마트화	·기술혁신제품개발(New Dominant Design) ·중소부품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기업 육성
시장 변화 ·산업 西進현상(중국 등 신흥국가 시장 견인) ·유럽→북미→일본→한국→중국(아시아)	·중국·동아시아 시장대응 전략마련
수급 구조 변화 ·SUV/CUV 수요 증가 ·수요 양극화에 따른 저가·고가 차 증가	·클린디젤(SUV) 생산라인 강화

주도를 할 수 있고, 영광권의 퍼스널모빌리티사업, 영암의 프리미엄 부품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의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내 완성차 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기술 패러다임은 크게 환경, 연비, 안전 규제 강화에 모아지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의 경우 친환경화·경량화·소형화에, 연비규제의 경우 경량화·소형화에, 안전규제의 경우 전장화, 지능화(스마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들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차량 및 부품생산 자금 지원에 1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대·기아차 공장을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무상제공 및 고용창출 지원금(교육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에 6억1000여 유로를 지원하고, 영국은 저탄소 자동차 혁신 플랫폼 설치에 1억4000만 파운드 등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차세대 저공해 자동차개발비에 1060억엔을,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해 1000억 위안을 투입,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기술 수준은 친환경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70~80%수준, 지능형차는 독일과 일본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핵심부품 기술력이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핵심부품 기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클린디젤차 핵심부품(ECU·고

압연로분사장치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클린디젤자동차 시장도 유럽의 자동차업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클린디젤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체도 변화하는 자동차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리더를 위한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기술 및 생산허브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첨단 핵심부품 산업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될수록 자동차산업 성장 견인 동력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한 국가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은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그린카 발전 로드맵,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등 법률적 지원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후: IPALG,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